



신화월드 유통상생협 놓고 재논란 예고

제주도 뒤늦게 개정 조례 제출... 인원 9명서 11명으로 도 "절차상 하자 있지만 등록 취소 사유로 볼 수 없어" 문종태 의원 "명백한 흠결... 유통상생협 원점 논의를"

제주도가 신화월드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 유통상생협)가 구성된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고 뒤늦게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법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유통상생협 구성·운영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점포 등록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며 이미 끝난 유통상생협 협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회 내부에서는 하자가 명백한 만큼 유통상생협을 새로 구성하고 점포 등록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유통상생협 참여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유통상생협은 대규모 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자와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한 기구를 말한다. 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 희망자가 지역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면 관할 관청은 반드시 유통상생협을 소집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유통상생협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문제는 상위법에 어긋난 현행 조례가 2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9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 때부터 유통상생협 참여 위원 수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지만 제주도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조례 개정에 나서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는 9명만 참여한 신화월드 쇼핑몰 유통상생협회의를 소집해 의견 청취 절차를 끝냈다. 이어 시는 그해 12월 신화월드 쇼핑몰에 대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승인했다.

이런 절차적 하자로 서귀포 중정으로 상가번영회 등은 신화월드 쇼핑몰 대규모 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일부 하자가 있지만 등록을 취소하거나 유통상생협을 재구성 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각각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절차

상 일부 하자는 있었지만, 점포 등록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또 당시 유통상생협이 대규모 점포 3명, 중소기업 2명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다시 유통상생협을 구성해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일대일 비율로 참여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미 끝난 (유통상생협)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도정 질문에서 이번 문제를 제기했던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김영동)은 "행정당국이 받은 법적 자문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유통상생협 구성 문제는 명백한만큼 이 기구를 새로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면서 "당시 유통상생협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얽힌 중정로 상가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편향적으로 운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4일 대전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신협 공동취재단

"지역이 강한 균형잡힌 대한민국 만들어야"

자치분권위·대신협 대토론회 '자치분권 2.0시대' 비전 모색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대전에서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4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자치분권 법제를 바탕으로 주민 공감과 지지 아래 한층 선진화된 지방자치 2.0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 순회 방식의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시작해 경인권·호남권·제주권·대경권에 이어 이날 충청권을 대상으로 6번째 자리를 가졌다.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며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권한 지방이양,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재정분권 정책을 큰 틀에서 논하며 지방재정 시스템의 미래지향적 개혁 필요성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이향수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홍표 충청투데이 부국장

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국가 행정이 정상적으로 가고, 시민들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방자치에 뛰어들었다. 이제는 개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올해 차질없이 준비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분권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충남형 지방자치를 통해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자기 색깔로 빛나며 조화 이루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충남이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권중순 대전시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나오고 있어 지방의회 17개 의장단이 28일 대전에서 비상대책위를 연다"며 "원래 취지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발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며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권한 지방이양,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했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대토론회를 계기로 주민참여 3법, 중앙-지방 협력 회의법, 고항사랑 기부금법 등 아직 계류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도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본격시행에 앞서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역대 정부보다 많은 과제를 해결해 왔는데 아직 부정부패가 있다"며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수려한 산책길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산책을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퇴직 없이 교육감·교육의원 출마 가능하게"

도교육청,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과제안 23건 확정 교원 추가 책정·개발사업자 무상공급 특례 재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 23건을 확정했다.

신규 과제안 중 교육감과 교육의원 출마를 위한 교육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유·초·중등

교원이 퇴직 없이 출마가 가능(휴·복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교육감·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이 담겨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 과제안은 최종 반영 여부를 떠나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즌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원터치&초간편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만에 끼우면 작업 끝.
-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 4m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 7m줄대 세트 (대형연)
- 질긴 천, 강한 부종 비스듬해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단길 14-28

DA IN 다인산업(주)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 상당 녹음선착순 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총돌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경구역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WIDEX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조금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번호 2018-GN1-11-0011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3층
와이덱스 보청기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